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34:15-18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79장(새 70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찬송 17번(스크린 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씩어 없어질 헛된 것을 좇으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한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소중함을 깨달아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선한 동기와 사랑의 행위가 뒤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베드로전서 4:12-19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 봉 헌(offering) 71장(새 50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67장(새 341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기 바랍니다.
2. 성경공부 및 기도회가 매 주 화요일 오전 10:30분에 있습니다.
3. 기길숙 성도님께서 이번 화요일에 골절된 손목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과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적, 물질적 자원이 신속히 공급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도록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성도님(좌골 신경통), 신성화집사님 어머니,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기길숙 성도님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베드로전서 4:12-19

12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이다

1.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14절, 15절) 나는 지금까지 시험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누구의 뜻이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아가면서 숭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전자는 고통만 있을 뿐이지 열매와 영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반드시 열매와 영광이 뒤따릅니다. 그 열매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뜻과 목적을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먼저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다 오게 된 것이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십자가에 정과 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맞게 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에 의문을 품거나 불평과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야말로 영광이요 축복임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